

지역 매 아 리

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서남권 대표 명소 '입증'

전북 서남권 대표 물놀이 명소인 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하 철보 물놀이장)이 한 달여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폐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철보물놀이장은 지난 달 7일 개장, 34일간 운영했다. 이 기간 정읍은 물론 전주와 광주 등 인근 대도시를 비롯 각지에서 모두 3만3,000여명이 찾았다.

시는 개장에 앞서 그늘막 시설 내에 데크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영장 바닥 전체에 대한 방수작업을 실시하고 수영장 주변에 미끄러짐 방지 매트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철보물놀이장은 전남북권의 물놀이 명소로 이름 높은 곳이다"며 "내년에도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학교 방역 소독 강화

고창군이 최근 지속적인 폭염과 습도 상승 등으로 위생 환경이 취약해짐에 따라 위생해충 구제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하절기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개학시즌을 맞아 지역 내 14개 읍·면, 초·중·고등 42개소 학교 주변 취약지역의 살충소독을 지난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유행성 눈병 및 수두 등은 전염력이 강해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비누를 이용한 올바른 손 씻기, 개인위생을 철저히 홍보하고 있다.

유행성 결막염 증상인 눈의 이물감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하고, 약 2주간의 전염기간 동안 등교금지, 수영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당부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개학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됨에 따라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시장, 태풍 '솔릭' 복상 대비 긴급 현장 점검

샘고을 시장 등 옥외광고물 정비... 송하진 지사와 주요 배수 펌프장 방문

유진섭 정읍시장이 22일 제19호 태풍 '솔릭(SOLIK)' 복상에 따라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른 간판 추락과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시장은 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샘고을시장과 중앙로, 새안로 등지에서 간판 파손, 흔들림, 지붕 개시대 등의 옥외광고물을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간판 노후화 정도 ▲부재 손상 여부 ▲접합 부분 연결 상

태 ▲구조적 결함 ▲차량과 보행자 통행 장애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도를 살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 또는 긴급 조치를 요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건물주에게 자진 정비하거나 철거토록 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옥외 광고물 점검에 이어 유 시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연지동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펌프장과 태안면 장재 배수펌프장도 방문했다.

방문에는 전북도와 정읍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했으며, 배수펌프장 관리와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시장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낙하 위험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최선 방책은 철저한 사전 대비"라면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만일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태세로 전환하는 한편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솔릭' 대비... 대응체제 행정력 집중

고창군(군수 유기상) 태풍 '솔릭(SOLIK)'에 대비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계획 및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가졌다.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유기상 군수와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한 모든 실과소장과 14개 읍면장이 참석하여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예방에 대한 이행 사항과 이후 대처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도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선제적 상황관리와 재해취약지역 예방 활동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폭염과 가뭄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이 태풍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군은 19호 태풍 '솔릭'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1일에 정토진

부군수 주재로 13개 협업기능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해 재해취약지역 예방과 안전조치 실시, 태풍 대비 낙하물 고정, 비닐하우스 및 노후 축사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기할 것과 해안가 및 대피 시설물 점검과 선박의 육상 인양과 결박, 하천변 양수 시설물 제거 등 태풍에 대비하여 부서별 사전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지도와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비상근무를 통해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하면서 태풍

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이날 저녁 제주도 부근까지 접근하고, 23일 저녁에는 충남 안면도 쪽에 상륙하여 서울 아래쪽을 지나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태풍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나서

부안군이 제19호 태풍 '솔릭' 복상에 따라 해안가 어선 피해 등 태풍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부안군은 제19호 태풍 '솔릭' 복상에 대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상황판단 및 긴급 대책회의는 국무총리 주관의 영상회의의 이후에 이루어졌다.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부안군수 권익현은 기상 정보를 토대로 부서장들과 함께 태풍 이동 경로와 부안군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등을 검토하고 피해 예방을 하려고 각 부서별 대처 사항 등을 협의했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는 해안가 및 선박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고 태풍 상륙을 대비한 선박 인양 대응 사항과, 크레인 등 항구 시설물의 안전점

검 사항 등 태풍 중에 해안가 및 항구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또 권익현 군수는 "올해 이미 태풍 뿌라뽀론과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 솔릭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 주민들의 걱정이 클 것"라면서 "24시간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특허를 취득한 발아귀리를 이용한 과일떡 '구리새싹떡'

식품 상품화 개발지원 효과 '톡톡'

발아귀리 이용한 과일떡 제조법 특허 취득

단풍고를 영농조합법인(대표 홍종진, 이하 단풍법인)이 최근 발아귀리를 이용한 과일떡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를 받은 기술은 지난 2016년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단풍고들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귀리의 식감을 개선하고 맛과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일을 첨가한 떡 제조 방법이다. 주요 소비 타겟(target)층은 유아와 여성이다.

단풍법인에 따르면 발아귀리 과일떡 개발로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19.5% 향상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좋은 원

료와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상품화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상품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단풍법인의 발아귀리 과일떡 개발과 산영농조합법인의 '정읍 오색 단풍떡(2017년)' 특허출원이 대표적인 결실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후에도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개발과 가공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정읍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사전 신청은 내달 28일까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부양의무자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그간 적용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였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 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실질적 조치다.

확대된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며, 중위소득의 43%(2인 기준 122만원)이하면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

우 대상으로 선정되면 10월부터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자가의 경우는 집수리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9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사전 신청기간 이후인 10월 중 신청하면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인내심이나 메시지 발송, 방문 안내 등을 통한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또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ad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boxe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describes the wine's quality and offers special prices for different gift sets.